국제사회 리더 부상 호기…대한민국 國格·브랜드 높인다

해외 귀빈 최대 규모로 특급호텔 숙소만 3000실

경제 파급효과 31조…국가 위상 업그레이드 기대

■ 행사 규모·기대효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파급 효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위상의 업그레이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동안 최대 규모의 해외 귀빈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참가 25개국 정상과 UN등 7개 국제기구 대표, 각국 각료, 비지니스 서밋에 참가할 세계 유수 기업의 CEO 120여명까지 합치면 수백 명에 이른다. 이들이 예약한 특급 호텔 숙소만 3000실에 이른다.

지난 9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24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쏘나타 100만대, 30만톤 급 초대형 유조선 165척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경제효과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달 초 G20정상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31조2747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6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수출확대 효과는 우리 국민 1인당 384달러에 달하는 대략 20조원으로 내다봤다.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 효과와 관련, "광고 효과만 해도 월드컵의 세 배이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소나타급 승용차 100만-150만대 수출 효과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특히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위상변화는 수출증대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지금까지 한국상품이라는 이유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1%의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제품들이 제 값만 받더라도 올해 41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G7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각종 의제에 대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주도적인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게 국내외의 전반적인 평가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위한 '개발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고 국제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IMF·금융규제 개혁 다뤄

'코리아 이니셔티브' 첫 논의

■ 의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기존의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과 같은 주제이며, 둘째는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개발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같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다.

기존 의제는 전 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공조인 프레임워크와 IMF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 이슈 중에서도 은행의 자본구조가 적정한지 여부, 대마불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SIFIs)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적자금의 금융권 분담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 의제의 경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정상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선진국 위주인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IMF 지분쿼터 가운데 최소 5%를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개발의제와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포함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개발의제'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된다.

G20이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나라가 개발의제를 제안한 배경이다. 비록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은 작지만, 이들은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발의제는 단순한 원조에서 벗어나 저개발국가의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금융안정망 역시 단순히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한 금융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경주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환율 전쟁이 어느정도 일단락되면서 금융안전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G20 정상회담 의제로 공식 제안한 것으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같은 지역별 자금 지원체계와 통화스와프 등 상호금융협력체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의제로 상정할 뜻을 내비치면서 희토류 문제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구성과정

74년 G7로 시작…세계경제 문제 최상위 포럼 우뚝

세계경제가 휘청거릴 때마다 새로운 국가간 협의기구가 탄생했다.

1974년 오일쇼크로 인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경제국이 중심이 된 G7이 탄생했다.

또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친 뒤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9년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만들어졌다.

기존 G7국가와 한국,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국제교역량 등 경제규모가 큰 20개국가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경제문제를 논의하게 됐다.

G20 구성원은 G7외에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연합(EU)이다.

이들 20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세계 총 GDP의 85%에 달한다.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것이 G20 정상회의의 시작이다. 이후 런던회의, 피츠버그회의, 토론토 회의를 거치면서 G20정상회의는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G20정상회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구속력을 갖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렇게 치러진다

코엑스서 정상회의…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G20정상회의가 1박2일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 이루어지는 만큼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셉션과 업무만찬 장소로 국립중앙박물관이 결정됐다.

G20 정상회의 장소는 서울 코엑스다. 코엑스 전시홀 2만2100㎡의 면적에 레드, 블루, 옐로 존으로 조성된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각국 대표단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최대 70여대의 특별기를 통해 서울과 인천,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 대표단이 이용할 특별기는 40-50대, CEO용은 10-20대로 예상된다. 각국 대표단은 서울 시내 10여개 호텔에 분산 투숙한다.

정부가 각국 대표단에 무료로 제공하는 차량은 정상이 탈 승용차 1대, 배우자가 탈 승용차 1대, 수행원용 밴 차량 2대 등 총 4대가 기본이다.

정상회의를 위해서 투입되는 동시통역사도 1개 언어당 3명씩 총 14개 언어에 42명이나 된다.

서울 G20 정상회의 취재열기도 뜨겁다. 취재 등록 기자단만 외국언론 1700명을 포함해 4000명, 대표단 참가자도 3200명이나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해오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입니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제품도 달라져야겠죠? 모근에 영양공급이 바르고 감아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뿐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진다.
(통신판매신고증 제19-5301호)
大히트 오래~ 오래~
신상품 롱~링
남자의 발기능력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고, 힘이 없고, 남성의 3대 고민은 오래~ 오래~ 롱~링으로 개선하자. 자동으로 흔들어 주고 떨어주며 롱링은 소프트하고 무게감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위생적으로 탁월하여 여성으로부터도 호감을 받습니다.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전자동
특, 大, 中, 小 4개 1Set 88,000원
스탠드업 大, 小 추가 50,000원
합계:138,000원
본 제품은 의료기가 아닙니다
02-2068-4142 010-3518-8995
02-2068-4143 010-3611-8272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010-8494-9484

축 2010 한돈 판매 인증점 선정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한돈 판매점 이란?
국내산 돼지고기 만을 사용한다는 대한양돈협회 품질보증 제도 입니다.
한돈인증점기념
공짜~해피타임 pm2시 ~ pm5시 사이
입장고객님께 보쌈 2인주문 + 고기1인분공짜 = 고기 3인분
(4인분주문 + 고기2인분공짜 = 6인분제공, 포장도가능!)
11월 1일 ~ 12월 10일까지 (단 토,일요일 제외)
민속촌 생돼지갈비
민속촌 한우숯불구이
1989·민속촌
민속촌
숯불돼지갈비 / 냉면전문점
민속촌황솔촌충장점
062)222-4815
광주 동구 호남동 73-2
무진주
메가박스 영화관
민속촌 충장점
콜박스 사거리
파레스호텔
제일극장
광주우체국
IF·U